

영산(靈山)의 줄다리기에 대(對)하여

朴 炫 国*¹ Jonah Salz*¹

金 鎮 国*² 高 惠 卿*³

靈山の綱引きについて

Tug-of-war of Youngsan

PARK Hyun kuk*¹ Jonah SALZ*¹

KIM Jinkuk*² and KO Haekyong*³

韓半島の南部には予祝儀礼として綱引きをおこなう村が多い。年の初めに、村の人々は大量のワラを集め、力を合わせて大きな綱を作って、綱を引き合ってその年の作物の吉凶を占うのである。この儀礼がいつから始まったのか、現在のところ記録を見出すことはできない。綱引きは韓半島のみならず、世界の各地でおこなわれている。運動会におこなう綱引きがそのいい例であるが、韓半島の場合は古代から儀礼としておこなってきたところに特色がある。綱の材料はワラであり、ワラは稲作を象徴するものである。この地方の綱引きに使われる綱は直径1m、長さ130mもある大きなものが少なくない。それを作るための技術や労力、儀礼のためのさまざまな手続きが必要である。単なる遊びではなく、信仰を共にする人々の熱い思いとエネルギーが結集され、伝承されてきた儀礼である。

韓半島東南部（慶尚道）は嶺南地方から洛東江にかけて平野が広がり、稲作が盛んにおこなわれている地方である。靈山における綱の制作方法は、同じ韓半島西南部（全羅道）に位置する金堤の月村面、井邑の精良里のものとよく似ている。両地方は距離にして150kmあまり離れている。さらに沖縄県糸満地方の綱引きの綱の作り方とも共通するところがある。これが伝播によるものか、それぞれの地方で個別に発生したものであるのか、現状では結論を出すことはできないが、文化の発生、伝播、定着を考える上で貴重な資料である。

靈山の綱引きでさらに興味深いことは、規模がたいへん大きいこと、また嶺南地方は稲作が盛ん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綱引きが行われているのは靈山だけであり、その周辺の地方では綱引きの報告がないことである。さらに靈山の綱引きは軍事的な色彩が非常に強いことがもう一つの特色ある。綱引きに先立って、その年に村の中から大将、中將、少將の3人が選ばれ、綱引きのすべての儀礼の指揮をする。大将、中將、少將の3人は、階級に準じた伝統的な衣装（軍服）を身につけ、刀を差し、馬に乗って綱引きの指揮をしたという。これに対して、先に記した金堤地方の綱引きは、軍事的要素を多少含んでいるものの、農耕儀礼の色彩が強い儀礼である。このような点に注目しながら、靈山の綱引きを報告する。

In the south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ugs of war have been played in various places. There is no record or written evidence when the tug of war started and who did it. But in the first twenty days of January, people would collect rice straws and make the rope with them, and play the tug of war. It seems that the tug war in the human life has been also played everywhere in the world from ancient times, not just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the tug of war was one of the plays that performed in the sports meeting, but in the ancient times it was the part of religious service. The main material of tug of war is the rice straw. The rice straws are dried one which were collected

* 1 龍谷大学国際文化学部

* 2 圓光大学校国語教育科

* 3 平沢大学校国語国文学科

after finishing harvest the rice. With these rice straws, people make the rope and play the tug of war. The tug of war is performed with carrying the rope to the place where the play would be performed after collecting the rice straw and making the rope. Those processes should solve the several complicated and hard works. Those processes are considered to be maintained not with work of simple play, but with the religious power of community. The human who wished richness and peace in their lives have been played the tug of war, by suffering with these complicated and hard processes and by trusting their dreams and faith. There are several distinctive tugs of wars in Korea Peninsula. These distinctions are due to the geographical region or processes of playing the tug of war, or making the rope. Bu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 basic principle that wishes the richness of rice harvest and the peace of community. The characteristic distinction in Young San tug of war is primarily that it was performed in rarely in Yung Nan region. Other regions of Young Nam have never reported about the tug of war. This Young San have been played the tug of war in a large scale for a long time. And the type of play was maintained in a militarily format. In the region of Junrado, the tug of war is said to be performed with instruments for folk music modeling the ancient militarily operation, but it does not show the militarily distinction. However, in the Young San tug of war, they choose the clean men as general, lieutenant general and major general, and let them supervise the whole ceremony. And moreover, it is provided with the rule about each uniform of general, lieutenant general and major general and their type and color of possessing swords. And it is said that they supervised the whole ceremony riding the horses. On this score, Young San tug of war is considered to be well preserved the ancient type of tug of war. This report was made based on the examination in the tug of war of the day.

1. 머리말

한반도(韓半島) 남부(南部)에서는 여러 곳에서 줄다리기를 행(行)하고 있다. 줄다리기가 언제 시작(始作)되었고, 누가 시작(始作)했다는 기록(紀錄)이나 문헌(文獻)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초(正初)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벧짚을 모으고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한다. 인간(人間) 생활(生活) 속에서 줄다리기라고 하는 놀이는 한반도(韓半島)뿐만 아니고 세계(世界) 도처(到處)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는 최근(最近) 운동회(運動會) 등(等)에서 노는 놀이이지만 고대(古代)에는 제의(祭儀)의 일부(一部)였다¹⁾. 줄다리기의 주요(主要) 재료(材料)는 벧짚이다. 벧짚은 주식(主食)인 쌀을 생산(生産)하는 벼의 수확(收穫)을 마친 뒤 건조(乾燥)시킨 것이다. 이 벧짚을 가지고 인간(人間)이 줄을 만들어서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는 벧짚을 모아서 줄을 만들고 줄을 줄다리기를 행(行)하는 장소(場所)로 줄을 운반(運搬)하여 실시(實施)한다. 이 과정(過程)은 여러 가지 복잡(複雜)하고 힘든 과제(課題)를 해결(解決)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過程)은 단순(單純)한 놀이의 작업(作業)이 아니고 공동체(共同体)의 신앙(信仰)의 힘으로 유지(維持), 보전(保全), 전파(傳播), 전승(傳承)되었다고 본다. 풍요(豐饒)와 안녕(安寧)을 기원(祈願)하는 인간(人間)들이 자신(自身)의 꿈과 신앙(信仰)을 의탁(依託)하여 이러한 복잡(複雜)하고 힘든 과정(過程)을 견뎌내면서 줄다리기를 해왔던 것이다. 한반도(韓半島)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特徵的)인 줄다리기가 많이 존재(存在)하고 있다²⁾. 이것은 지역(地域)에 따라서 차이(差異)를 보이고 줄다리기를 행(行)하는 과정(過程)이나 줄의 제작(制作) 등(等)에서 차이(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줄다리기의 기본적(基本的)인 원리(原理) 즉(即) 도작(稻作) 농사(農事)의 풍년(豐年)을 기원(祈願)하고 집단(集團)의 안녕(安寧)을 바라는 원칙(原則)에는 큰 차이(差異)가 없다고 본다.

2. 영산(靈山)의 지역적(地域的) 특성(特性)

경상남도(慶尚南道) 창녕군(昌寧郡) 영산면(靈山面)의 영산(靈山)이다. 면(面) 소재지(所在地)에는 교리(橋里), 성내(城内), 동리(東里) 서리(西里) 등(等) 네 개 마을이 있다. 영산면(靈山面) 인구(人口)는 전체(全体) 1 만(萬) 2 천(千) 명(名) 정도(程度)인데 이곳 면(面) 소재지(所在地)의 네 마을에 1 천(千) 호(戶)에 5 천(千) 명(名) 정도(程度)가 산다³⁾. 2005 년(年) 창녕군청(昌寧郡庁) 자료(資料)에 의(依)하면 영산면(靈山面)에는 2,616 세대(世代), 인구(人口) 6,563 명(名)이다⁴⁾. 이곳 인구(人口)는 27년(年) 만에 절반(折半)으로 감소(減少)하였다. 이것은 한국(韓國) 농촌(農村) 지역(地域)의 인구(人口) 감소(減少) 현상(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歷史的)으로 이곳 영산(靈山)은 가야(伽倻) 연맹(聯盟)의 하나로서 탁기탄(啄己呑) 지역(地域)이었으나 530 년대(年代) 신라(新羅)에 통합(統合)되었다. 그 후 서화현(西火縣), 상약현(尙藥縣) 등(等)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랜 세월(歲月) 밀양(密陽)의 영현(領縣)으로 있었다. 1895 년(年) 대구부(大邱府) 소관(所管)의 영산군(靈山郡)이 되었다가 1914 년(年) 경상남도(慶尚南道) 창녕군(昌寧郡)에 편입(編入)되었다. 영산(靈山)이라는 지명(地名)은 영산천(靈山川) 또는 군천천(郡泉川)의 이름에서 유래(由來)된 것이다⁵⁾. 영산(靈山)이라는 지명(地名)이 오래 전(前)부터 있어왔다는 점(點)에서 이곳 영산(靈山)은 역사적(歷史的)으로 유래(由來)가 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산면(靈山面) 소재지(所在地)의 인근(隣近) 여통(余通)과 소산(所山)에는 봉수(烽燧)가 있어 거제도(巨濟島)에서 시작(始作)된 봉수망(烽燧網)이 이곳을 통(通)하여 북(北)쪽으로 전달(傳達)되었다. 이 곳을 흐르는 영산천(靈山川)은 낙동강(洛東江)으로 흐르는데, 이곳은 특(特)히 낙동강(洛東江)과 남강(南江)이 합류(合流)하는 평야(平野) 지역(地域)으로 수운(水運)이 발달(發達)하였고, 도로(道路) 역시(亦是) 북(北)쪽으로 창녕(昌寧), 남(南)쪽으로 매포(梅浦), 칠원(漆院), 동(東)쪽으로 청도(淸道), 밀양(密陽), 서(西)쪽으로 삼가(三加) 등지(等地)를 잇는 도로망(道路網)이 발달하였다. 즉 마을을 중심(中心)으로 마을 뒤편에는 봉수(烽燧)를 하던 영축산(靈鷲山)과 작약산(芍藥山)이 있고 마을 앞에는 산(山)에서 흘러내린 물이 머무는 연지(蓮池), 고지(古池) 등(等) 저수지(貯水池)가 있고, 이들 저수지(貯水池)의 물은 주변(周邊) 평야(平野)를 적시며 낙동강(洛東江)으로 연결(連結)되어 강(江) 주위(周圍)에는 넓은 평야(平野)가 펼쳐져 있다. 즉(即)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요로운 마을이다. 그밖에 주변(周邊)에는 돌로 아치 형태로 쌓아 만든 만년교(萬年橋)(宝物 564 号), 석빙고(石氷庫)(史蹟 169号) 등(等) 유적(遺蹟)들이 남아있다⁶⁾. 역사적(歷史的)으로나 주변(周邊) 경관(景觀) 그리고 지세(地勢) 등(等)으로 보아 고대(古代)로부터 많은 사람이 살아왔고 역사적(歷史的)인 유물(遺物), 유적(遺蹟)이 많은 곳이다. 이 글에서는 영산(靈山)의 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언급(言及)하고자 하나 이곳은 이외(以外)에 이와 같은 유형(類型) 민속(民俗) 행사(行事)인 영산(靈山) 쇄머리대기, 영산(靈山) 단오(端午)굿이 매년(每年) 삼일문화제(三一文化祭)와 단오(端午) 때 행(行)해지고 있다⁷⁾.

1) 영산(靈山) 줄다리기

(1) 목적(目的)

줄다리기의 목적(目的)은 앞서서도 언급(言及)한 것처럼 수도작(水稻作)을 주요(主要) 산업(產業)으로 여기던 예로부터 벼농사(農事)의 추수(秋收) 결과물(結果物)인 벼짚을 가지고 줄을 만들어 줄다리를 행(行)하면서 한 해의 풍요(豐饒)를 신(神)에게 감사(感謝)하고 새해의 풍작(豐作)을 기원(祈願)하는 유감(有感) 주술적(呪術的) 신앙(信仰) 행위(行為)이다. 즉 풍요(豐饒)를 가져다준 벼짚을 인간(人間)이 가지고 제의(祭儀)와 놀이를 행(行)하면서 벼짚의 사물성(事物性)이 인간(人間)과 인격적(人格的)으로 교류(交流)하면서 서로 교통(交通)하기를 기원(祈願)한다. 이 교통(交通)을 통(通)하여 인간(人間)의 기원(祈願)과 희망(希望)이 벼짚을 통(通)하여 신(神)에게 전(傳)해져 새해에 더욱 풍요(豐饒)로워질 것이라는 기대(期待)와 확신(確信)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줄다리를 위(為)해서 만들어지는 줄은 더 이상(以上) 사물성(事物性)의 줄이 아니고 긴 용(龍)을 상징(象徵)한다. 용(龍)은 벼농사(農事)에서 필수적(必需的)인 물을 관장(管掌)하는 신(神)이다. 따라서 물의 신(神)인 용(龍)을 상징(象徵)하는 줄을 만들어 제의(祭儀)를 지내면서 용(龍)의 힘을 인간(人間)에게 유리(有利)하게 활용(活用)하려는 희망(希望)이 담겨져 있다. 줄을 용(龍)으로서 신앙시(信仰視)하는 습관(習慣)은 줄을 밤새워 지키거나, 줄 앞에서 제의(祭儀)를 지내거나, 줄다리가 끝난 다음 줄의 일부(一部)를 잘라서 집으로 가져가 모셔 두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습속(習俗) 등(等)에서 알 수 있다. 이 영산(靈山) 줄다리는 1969년(年) 2월(月) 행(行)해진 줄다리를 기준(基準)으로 1970년(年)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제(第) 26호(号)로 지정(指定)되어 지금(至今)도 매년(每年) 행(行)하고 있다. 한반도(韓半島)의 다른 지역(地域)에서 행(行)하는 줄다리는 마을 당제(堂祭)와 동시(同時)에 주(主)로 정월(正月) 보름에 행(行)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한해의 시작(始作)인 정월(正月) 보름에 줄다리를 행(行)하여 한해의 풍년(豐年)과 안녕(安寧)을 기원(祈願)하는 면(面)에서 그렇다⁸⁾. 다만 이곳 영산(靈山) 줄다리는 3월(月) 1일(日) 행(行)한다. 이것은 원래(元來) 정월(正月) 보름에 행(行)하던 줄다리가 31 문화제(文化祭) 행사(行事)와 결합(結合)하여 3월(月) 1일(日)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 영산(靈山)은 식민지(植民地) 시대(時代) 영남(嶺南) 지방(地方)에서 처음 만세(萬歲) 운동(運動)이 열렸던 곳이라고 한다⁹⁾.

(2) 줄 만들기

마을 사람들이 줄다리를 하기 위(為)해서는 줄을 만들어야 한다. 줄은 벼짚으로 만든다. 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自身)의 집에 있는 벼짚을 마을 공터로 가져와 줄을 만든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自身)의 농사(農事) 규모(規模)에 따라서 벼짚을 자발적(自發的)으로 가져온다. 줄다리가 동서(東西) 두 진영(陣營)으로 나뉘서 하기 때문에 줄 역시(亦是) 동서(東西) 각(各) 진영(陣營)에서 따로따로 만든다. 각(各) 진영(陣營)은 대략(大略) 4개(個) 마을이 한 진영(陣營)을 이룬다. 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네 개 마을이 한 조(組)가 되어 한 곳에 벼짚을 모아서 함께 만든다. 줄을 만들 때에는 삼발이를 두 개(個) 세우고 이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가로로 걸쳐둔다. 이 가로로 걸쳐둔 나무 막대기에 벼짚으로 만든 줄을 엮어 걸쳐둔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만들어진 줄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 사람이 한 조(組)가 세 가닥으로 엮은 줄에 벼짚을 넣은 다음 줄의 끝을 잡고 오른쪽으로 돌린다. 이렇게 하여 길어진 줄은 반대(反対)

쪽에서 잡아당겨 줄을 꼬기 좋게 조절(調節)한다. 줄의 길이가 300 미터 이상(以上)이 된 적도 있었으며 최근(最近) 100 여 미터 정도(程度)이다. 이렇게 꼬아진 줄 30 여 가닥을 합(合)하여 한 줄로 만든다. 이것을 줄 엮기라고 하는데 줄 30 여 가닥을 땅바닥에 펴놓고 엮어 나간다. 이것은 경험(經驗)이 풍부(豊富)한 사람이 담당(担当)한다. 줄을 잘 엮어야 줄다리기 알맞은 튼튼한 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줄을 엮을 때에는 마른 볏짚으로 만든 줄이 거칠고 투박하여 작업(作業)하기가 어려워 부드럽게 하기 위(為)해서 물과 소금을 뿌린다. 물만 뿌리면 물이 얼어서 줄을 손상(損傷)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같이 뿌려둔다. 그리고 소금은 재액(災厄)을 멀리하고 부정(不淨)을 씻는 의미(意味)도 포함(包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줄이 다 엮기면 말기로 들어간다. 우선 명석을 말 듯 전체 길이대로 말아서 묶은 다음 날줄 가락으로 말아간다. 줄이 다 말리면 줄을 반으로 접어서 줄목을 내고 두 몸줄을 맞붙여 몸줄을 하나로 만든다. 줄목은 암줄과 수줄을 따로 만든다. 이 줄목은 줄의 머리에 해당(該當)되는 핵심적(核心的)인 부분(部分)이다. 수줄이 암줄의 고에 들어가고 다시 수줄머리에 소나무로 만든 비녀목을 끼워 넣는다. 그리고 줄다리를 한다. 따라서 이 줄목에는 줄을 당기는 양편(兩便)의 모든 힘이 실리기 때문에 튼튼해야하고 줄이 상징(象徵)하는 용(龍)의 머리이기 때문에 미적(美的)인 면(面)에서도 심혈(心血)을 기울여 만든다. 줄을 만들어 엮고, 말고 곱치기 때문에 원래(元來) 100 여 미터로 만든 줄도 40 미터 정도(程度)이다. 그리고 줄의 둘레가 너무 굵어서 사람들이 잡고 잡아당길 수 없다. 그래서 줄 몸통에 새끼줄로 젓줄을 엮는다. 젓줄은 몸줄의 양(兩)쪽으로 줄을 묶어낸다. 대략(大略) 몸줄에 50 센티미터의 간격(間隔)으로 5 미터 정도(程度) 길이이다. 사람들이 줄다리를 할 때에는 이 젓줄을 잡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튼튼해야한다. 그리고 젓줄을 잡아당기면 몸줄을 옥죄어 몸줄이 단단해진다. 줄의 끝 부분은 젓줄을 엮지 않고 줄 끝을 풀어헤쳐 둔다.

이렇게 줄이 다 만들어지면 줄을 만드는 과정(過程)에서도 올려대던 풍물(風物)이 다시 한번 줄을 둘러가며 줄머리굿을 친다. 그리고 줄머리에서 간단한 고사(告祀)를 지낸다. 〈写真1〉 〈写真2〉 이때부터 줄은 더 이상(以上) 볏짚이 아니고 용(龍)으로서 대접(待接)받는다. 그래서 외부인(外部人)들이 줄을 부정(不淨)하게 하거나 해(害)를 입히지 않도록 밤새워 지킨다.

(3) 줄나가기

마을 사람들이 줄다리를 하기 위(為)해서 줄이 있는 마을 광장(広場)에서 줄다리를 행하는 곳까지 줄을 운반(運搬)한다. 이것을 이곳 영산(靈山)에서는 ‘줄나가기’라고 한다. 줄을 만들어서 줄다리를 하는 곳까지 운반(運搬)하는 행사(行事)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영산(靈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행(行)한다. 줄을 만들고 줄을 줄다리를 행(行)할 곳으로 줄을 운반(運搬)하는 것을 지신밟기라고 한다. 이것은 한해의 풍년(豐年)과 마을의 평안(平安)을 위(為)해서 마을의 지신(地神)을 밝아 위로(慰勞)해주는 민속(民俗) 의례(儀禮)이다¹⁰⁾. 마을에 따라서 줄을 만든 장소(場所)에서 출발(出發)하여 마을을 한바퀴 돌고 다시 줄을 만든 곳에 모여서 줄다리를 하는 곳도 있다. 줄은 용(龍)을 상징(象徵)한다. 용(龍)은 물 속에 거주(去週)하면서 비와 물을 관장(管掌)하는 양성(陽性)의 신(神)이다¹¹⁾. 땅은 모든 만물(万物)의 씨앗을 받아들여 싹을 틔우는 음성(陰性)의 신(神)이다. 따라서 지신밟기는 양성(陽性)과 음성(陰性)의 두 신(神)이 서로 만나 위무(慰撫)하여 조화(調和)롭게 화합(和合)하여 인간(人間)에게 한해동안 풍년(豐年)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인간(人間)의 주술적(呪術的) 의사(意思)의 표현(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 줄다리를 비롯하여 줄나가기 등(等)의 전(全) 과정(過程)에서 군사적(軍事的)

인 표현(表現) 양식(樣式)을 강조(強調)한다. 줄을 옮기는 과정(過程) 즉 지신밟기에서 대장(大將), 중장(中將), 소장(少將)이라고 하는 세 장군(將軍)이 줄 위에서 칼춤을 추면서 줄나가기(줄다리기)를 지휘(指揮)하면서 줄을 운반(運搬)한다. 〈写真3〉, 〈写真4〉 이들은 모두 계급(階級)에 따라서 복장(服裝)이나 서는 위치(位置)를 달리하여 큰칼을 들고 칼춤을 추면서 줄의 이동(移動)을 지휘(指揮)한다. 원래(元來) 줄을 운반(運搬)할 때에 마을 사람들이 줄을 어깨에 매고 했을 것으로 짐작(斟酌)되나 지금(只今)은 줄을 철재(鐵製) 수레에 실어서 운반(運搬)한다. 줄의 좌우(左右)에는 줄다리를 할 마을 사람들이 줄을 실은 수레를 밀면서 따라간다. 그리고 줄 부근(附近)에는 풍물(風物)군이 풍물(風物)을 친다. 〈写真5〉 〈写真6〉 〈写真7〉 마을 사람들은 풍물(風物) 가락에 맞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대나무 기(旗)를 흔들면서 따라간다. 앞으로 있을 줄다리기에서 힘을 다해 승리(勝利)하려는 출전(出戰) 사기(士氣)를 이때 힘껏 발휘하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승리(勝利)하고자 하는 단결(團結) 의식(意識)을 고취(高趣)하는 과정(過程)이기도 하다. 이곳 영산(靈山)에서 줄나가기(줄다리기)를 할 때 줄 메는 노래를 부른다¹²⁾. 노래의 내용(內容)은 줄다리기에서 승리(勝利)하고자하는 확신과 다짐, 그리고 주변(周邊) 산(山)의 이름을 부르고 줄머리에 꽃이 필 것이라 한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노래 내용(內容)으로 보아 이 곳의 줄나가는 다른 지역의 지신밟기와 같은 유형(類型)임을 알 수 있다.

(4) 줄다리기

최근(最近) 이곳 영산(靈山) 줄다리기는 영산면(靈山面) 인근(隣近)에 있는 영산(靈山) 삼일(三一) 운동장(運動場)에서 줄다리를 행(行)한다. 전(前)에는 마을 앞 보리밭이나 마을 부근(附近) 학교(學校) 운동장(運動場) 등(等)에서 거행(舉行)했으나¹³⁾ 십(十) 여(余) 년(年) 전(前)에 새로이 마을 운동장(運動場)이 생겨서 항상(恒常) 이곳에서 한다. 마을에서 출발한 줄은 장군(將軍)들의 지휘(指揮)에 따라 마을 앞을 지나 삼일(三一) 운동장(運動場)에 도착(到着)한다. 〈写真8〉, 〈写真9〉, 〈写真10〉, 〈写真11〉 줄이 오면 암줄은 줄머리를 서(西)쪽에서 동편(東便)으로 향(向)하게 늘어놓고, 숫줄은 동편(東便)에서 서쪽으로 늘어 놓는다. 〈写真12〉 이렇게 줄이 놓이면 양편(兩便)의 풍물(風物)이 줄곳을 자지러지게 친다. 그리고 각(各) 편(便)의 마을 사람들은 줄 주위(周圍)에서 춤을 춘다. 〈写真13〉 전(前)에는 각(各) 편(便)이 줄을 경계(境界)로 진잡이 놀이를 했다고 하나 지금은 행(行)하지 않는다. 진잡이 놀이는 각(各) 편(便)의 장군(將軍)들이 말이나 소를 타고 나머지 사람들과 더불어 상대편(相對便)을 향(向)해 돌진(突進)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진잡이 놀이 이외(以外)에 서낭싸움, 이싸움놀이 등(等)이 있었으나 지금(只今)은 거의 행(行)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 전체(全体)가 하는 큰 줄과 별도로(別途)로 각(各) 마을에서 작은 줄은 만들어 골목 줄다리를 하는데 이때에 주(主)로 이러한 놀이를 했다고 한다¹⁴⁾.

줄이 놓이고 줄 부근(附近)에서 놀기를 마치면 서서히 줄을 길어서 숫줄 목을 암줄 목에 집어넣고 목나무를 끼운다. 목나무는 지역에 따라서 비너목이라고도 하며 소나무를 잘라 꺾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목나무의 크기는 줄의 굵기에 비례(比例)하지만 최근(最近) 사용(使用)되는 것은 길이 2.5 미터 정도(程度), 지름 20 센티미터 정도(程度)이다. 줄에 목나무를 끼울 때 암줄과 숫줄은 서로 중심(中心)에 가까이 오지 않고 상대편(相對便)이 가까이 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다. 이것은 자신(自身)의 줄을 너무 당겨 오며 줄이 느슨해져 줄다리를 할 때 불리(不利)하다며, 남녀(男女) 성(性) 관계시(關係時) 누가 움직이는 것이 일상적(日常的)이나며 일상적(日常的)인 원칙(原則)에

따라 상대편(相對便)이 먼저 중앙(中央) 가까이 와야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말싸움을 한다. 싸움과 소란(騷亂)이 지난 뒤 숫줄 머리를 모로 세워 놓고 암줄 머리를 장대로 들어서 덮어씌우고 숫줄 머리에 비녀목을 꽂으면 줄 걸기가 끝난다. 비록 설명(説明)은 간단(簡單)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함성(喊聲)과 풍물(風物)소리, 서로 상대방(相對方)에게 요구(要求)하는 소리 등(等)으로 아수라장을 이룬다. 그리고 무거운 줄을 장대로 들어 올려 덮어씌우기 때문에 간단(簡單)히 끼워지지도 않는다. 〈写真14〉

줄이 다 끼워지면 서서히 줄다리를 행(行)한다. 총(銃)소리로 신호(信號)가 울리면 풍물(風物)소리에 맞춰 영차 줄다리를 한다. 모두 자신(自身)의 온 힘을 다해 짓줄을 당긴다. 대략(大略) 15 분(分) 간(間) 줄을 당긴 뒤 움직인 결과(結果)로 승패(勝敗)를 정(定)한다. 모두 아비규환(阿鼻叫喚), 무아(無我) 지경(地境)에서 줄을 당긴다. 〈写真25〉 줄다리가 끝나면 중심(中心)에 정해 둔 곳을 기준(基準)으로 어느 곳으로 많이 이동(移動)했는지 확인(確認)하여 승패(勝敗)를 정(定)한다. 전(前)에는 여성(女性)을 상징(象徵)하는 서편(西便)이 이겨야 마을에 풍년(豐年)에 든다고 하여 서(西)쪽이 이기도록 유도(誘導)했으나¹⁵⁾ 지금(只今)은 무조건(無條件) 자신(自身)의 편(便)이 이겨야 자신(自身)의 마을이 풍년(豐年)에 든다고 하여 모두 혈안(血眼)이 되어 줄을 당긴다. 줄다리기에서 승리(勝利)한 편(便)은 자신(自身)이 승자(勝者)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을을 향(向)해 행진(行進)한다.

(5) 줄의 처리(處理)

마을사람들은 줄다리가 끝난 뒤 이긴 편(便)의 줄을 길이 2 미터 정도(程度)로 잘라서 집으로 가져간다. 이것을 자신(自身)의 초가(草家) 지붕 위에 올려 두면 한 해 동안 집안에 행운(幸運), 풍년(豐年)이 오고 재수(財數)가 좋다고 한다. 이긴 편(便)의 줄이 다 없어지면 진 편(便)의 줄도 같은 길이로 잘라가기도 한다. 〈写真16〉 그리고 남은 줄은 마을에서 가축(家畜)을 기르는 농가(農家)에서 사료용(飼料用)으로 구입(購入)해 간다. 마을 사람들은 줄다리의 뱃줄을 사료(飼料)로 가축(家畜)에게 주면 가축(家畜)에게 이롭다는 말도 한다.

3. 마무리

이곳 영산(靈山)에는 줄다리기 이외에도 영산(靈山)쇠머리대기가 있다. 이것 역시(亦是)마을 사람들이 한해의 풍요(豐饒)와 안녕(安寧)을 기원(祈願)할 목적(目的)으로 소나무로 쇠머리를 만들어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 대결(對決)하는 것이다. 이 영산(靈山)쇠머리대기는 1969 년(年)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25호(號)로 지정(指定)되었다. 그밖에 단오(端午)날에 행(行)하는 영산(靈山) 단오(端午)굿이 있다. 이것은 이곳에 살던 이인(異人) 문호장이 억울하게 사형(死刑) 당해 죽었다고 하여 그와 그의 가족(家族)의 영혼(靈魂)을 위로(慰勞)해주는 곳이다. 이 지역(地域)은 영산(靈山)줄다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속(民俗) 행사(行事)가 행해져 온 곳이다. 이것들은 이곳 영산(靈山)이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사실(事實)을 말해주고 있다. 줄다리는 한반도(韓半島)의 남서부(南西部) 평야(平野) 지역(地域)에서 주(主)로 많이 행(行)해진다. 이곳 영산(靈山) 역시(亦是) 영남(嶺南) 지역(地域)에서 낙동강(洛東江)을 끼고 평야(平野)가 넓게 형성(形成)된 곳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벼농사(農事)의 풍요(豐饒)를 기원(祈願)하는 줄다리가 행(行)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산(靈山)에서 줄을

만드는 방법(方法)은 전라도 평야(平野) 지역(地域)인 김제(金堤) 월촌면(月村面), 정읍(井邑) 정량리(精良里)의 줄 만드는 방법(方法)과 동일(同一)하며, 이 방법(方法)은 일본(日本) 오키나와(沖縄) 이토만(糸満)의 줄 만드는 방법(方法)과도 동일(同一)하다¹⁶⁾. 이 세 곳의 줄 제작(製作) 방법(方法)이 동일(同一)한 이유(理由)는 단정적(斷定的)으로 말할 수 없다. 필자(筆者)의 생각으로는 과거(過去) 교류(交流)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벼농사(農事)를 지어왔다는 동일(同一) 조건(條件)에서 비슷한 방법(方法)이 생겼을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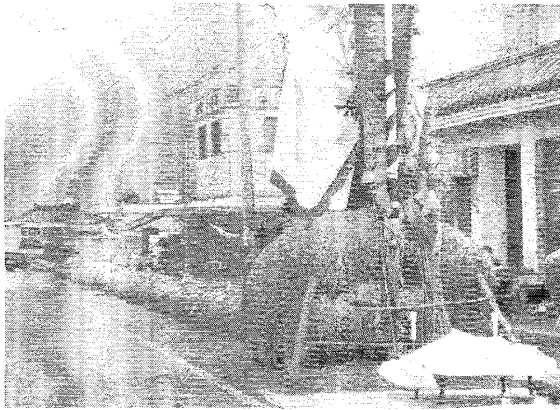
영산(靈山) 줄다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성적(個性的)인 특징(特徵)은 먼저 영남(嶺南) 지역(地域)에서 드물게 줄다리를 행(行)한다는 점이다. 영남(嶺南)의 다른 지역(地域)에서는 줄다리가 그다지 보고(報告)된 적이 없는데도 이곳 영산(靈山)은 오래 전(前)부터 대규모(大規模)로 줄을 만들고 줄을 당겨왔다. 그리고 줄다리의 놀이 형식(形式)이 군사적(軍事的)인 형태(形態)를 유지(維持)하고 있다는 점(點)이다. 전라도(全羅道) 지역(地域) 줄다리기에서도 줄다리는 풍물(風物)과 더불어 옛날 군사(軍事) 작전(作戰)을 모방(模倣)하여 행(行)한다고 하지만 군사적(軍事的)인 특징(特徵)이 크게 돋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곳 영산(靈山) 줄다리기에서는 줄다리에 앞서 마을에서 정결(淨潔)한 사람으로 대장(大將), 중장(中將), 소장(少將)을 선정(選定)하여 줄다리의 전체(全体) 행사(行事)를 주관(主管)하고 지휘(指揮)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대장(大將), 중장(中將), 소장(少將)의 복장(服裝)이나 그들이 소지(所持)하는 칼의 색깔과 크기까지 규정(規定)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원래(元來) 말을 타고 지휘(指揮)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點)에서 이곳 영산(靈山)의 줄다리는 줄다리의 고형(古型)이 잘 보존(保存)된 곳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報告書)는 줄다리가 행(行)해지는 당일(當日) 조사(調査)를 중심(中心)으로 정리(整理)한 것이다. 줄다리를 준비(準備)하는 모든 과정(過程)에 참가(參加)하여 세밀(細密)하게 정리(整理)하는 것은 다음 기회(機會)의 과제(課題)로 남겨둔다.

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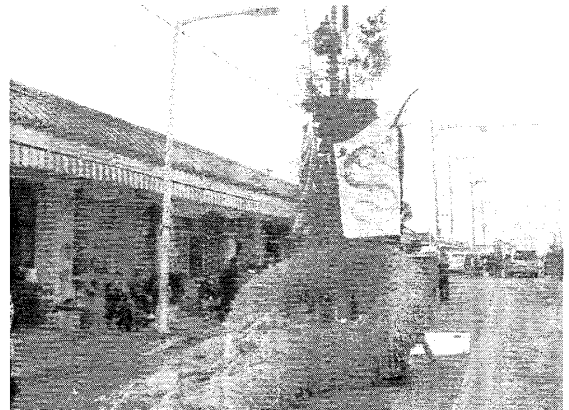
- 1) Frazer J., *The Golden Bough - Bibliography and General Index*, Macmillan, 1955., pp. 503-504.
- 2) 韓陽明, “韓國大同놀이研究-편싸움을 중심으로-”, 中央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3, 12., 李禹永, 『機池市줄다리기 (堂祭・龍王祭)』 集文堂, 1986. 5
- 3) 曹星國, 『靈山줄다리기 쇠머리대기』 圖書出版 素民苑, 1978. 12.
- 4) <http://www.cng.go.kr/statistics/>
- 5) 李聖學, ‘靈山’,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 567.
- 6) 黃鶴周, ‘靈山萬年橋’,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 571.
秦弘燮, ‘靈山石氷庫’,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 571.
- 7) 曹星國, 『一奉曹星國先生 글모음 I 원다리 만년교는 님의 기개요』, 圖書出版 展望, 2004. 4., p. 387., 崔吉城, ‘靈山단오굿’,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 570.
- 8) 朴桂弘, 『韓國의村祭り』, 國書刊行會, 1982., pp. 248-251.
- 9) 曹星國, 前掲書, p. 89.
- 10) 李杜鉉・張壽根・李光奎 共著, 『韓國民俗學概說』, 學研社, 1987., pp. 241-244.
- 11) 姜友邦, “용 (龍)”, 『韓國文化象徵事典』 東亜出版社, 1992., pp. 485-491.
- 12) 曹星國, 前掲書, pp. 421-422.
- 13) 張壽根, “靈山줄다리기”,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 578.
- 14) 曹星國, 前掲書, pp. 423-428.
- 15) 張壽根, 前掲書.
- 16) 朴炫國, “沖繩의 綱引”, 『國際文化研究』 第3号, 龍谷大學國際文化學會, 1999.

참고문헌(参考文献)

- 姜友邦, “용(龍)”, 『韓國文化象徵事典』, 東亜出版社, 1992.
- 金善豊, “三陟 기줄다리기에 대하여”, 『韓国民俗学』第8輯, 韓国民俗学会, 1975.
- 金烈圭, 『韓国民俗과 文学研究』, 一朝閣, 1982.
- 羅景洙, “全南地域堂山祭의 一環으로서의 줄다리기의 性格”, 『公演文化研究』第5輯, 韓國公演文化学会, 2002.
- 朴桂弘, 『韓國の村祭り』, 国書刊行会, 1982.
- 朴順浩, “全北의 줄다리기”, 『韓国民俗学』第17輯, 韓国民俗学会, 1984.
- 朴銓烈, 『鳳山仮面劇』, 華山文化, 1994., 『門付けの構造』弘文堂.
- 朴炫国, “近江八幡の左義長祭りについて”, 『比較民俗学会』第33輯, 比較民俗学会, 2007. 2
- 朴炫国, “近江八幡の左義長とバリのオゴオゴ行進”, 『龍谷大学国際社会文化研究所紀要』第4号, 龍谷大学国際社会文化研究所, pp. 11~16, 2002. 3
- 朴炫国, “沖繩의 綱引”, 『國際文化研究』第3号, 龍谷大学国際文化学会, 1999.
- 朴炫国, “御田植の現場論的考察”, 『國際文化研究』第2号, 龍谷大学国際文化学会, 1998. 5
- 朴炫国外, 『銅雀区の民俗文学』民俗苑 1997.
- 須藤護, 朴炫国, “日中稲作文化の比較研究-雲南の少数民族を訪ねる旅から”, 『龍谷大学国際社会文化研究所紀要』第3号, 龍谷大学国際社会文化研究所, 2001. 2
- 須藤護, 朴炫国外, “日本と韓国における稲作文化の比較研究”, 『龍谷大学国際社会文化研究所紀要』創刊号, 龍谷大学国際社会文化研究所, 1999. 3
- 李東哲, “果川계줄다리기의 伝説과 놀이의 伝承様相”, 『比較民俗学』第30輯, 比較民俗学会, 2005. 8.
- 李杜鉉・張壽根・李光奎 共著, 『韓国民俗学概説』, 学研社, 1987.
- 李聖学, ‘靈山’,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李禹永, 『機池市줄다리기(堂祭・龍王祭)』, 集文堂, 1986. 5.
- 李昌植, “술비통과 줄다리기에 대한 考察”, 『새國語教育』39輯, 韓國國語教育学会, 1984.
- 任東權, 『韓國の民俗と伝承』, 桜楓社, 1984.
- 張壽根, “靈山줄다리기”,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曹星国, 『一奉曹星国先生 글모음 I 원다리 만년교는 님의 기개요』, 圖書出版 展望, 2004. 4.
- 曹星国, 『靈山줄다리기 쇠머리대기』, 圖書出版 素民苑, 1978. 1.
- 秦弘燮, ‘靈山石氷庫’,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崔吉城, ‘靈山단오굿’,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崔仁鶴, “줄다리기에 관하여”, 『民俗学』第6輯, 民俗学会, 1977.
- 黃鶴周, ‘靈山万年橋’,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 韓陽明, “韓國大同놀이研究-편싸움을 중심으로-”, 中央大学校大学院博士学位論文, 1993. 12.
- 許容浩, “民俗놀이의 全国的分布와 農業的基盤”, 『民俗文化研究』第41号, 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所, 2004.
- Frazer J., *The Golden Bough - Bibliography and General Index*, Macmillan,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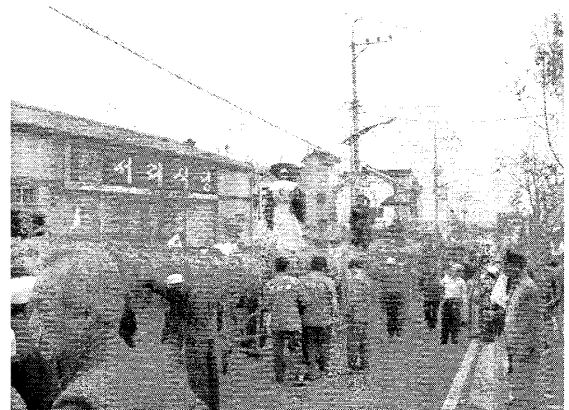
<寫眞 1> 마을앞 줄 앞면



<寫眞 2> 마을앞 줄 뒷면



<寫眞 3> 줄 위에서 지휘하는 장군들 앞면



<寫眞 4> 줄 위에서 지휘하는 장군들 뒷면



<寫眞 5> 줄나가기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寫眞 6> 줄나가기에 동참하는 풍물꾼



<寫眞 7> 줄나가기에 동참하는 마을 사람들



<寫眞 8> 줄이 운동장에 들어오는 모습



<寫眞 9> 줄을 운동장에서 펼치는 모습



<寫眞 10> 암줄 머리



<寫眞 11> 수줄과 암줄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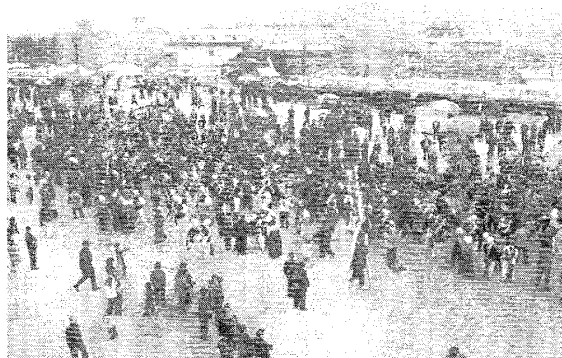
<寫眞 12> 줄을 펼쳐놓은 모습



<寫眞 13> 줄머리에서 풍물을 치는 풍물꾼



<寫眞 14> 암줄과 수줄을 결합시키는 모습



<寫眞 15> 줄다리기



<寫眞 16> 줄다리기 뒤 줄을 자르는 사람들